

2002 세계지구정상회의 (WSSD 2002, Rio+10)와 여성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 WSSD 2002

2002년 6월 개최 예정이었던 리우+10으로 불리우는 세계지구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세계의 6억의 인구가 열광하는 월드컵 경기에 밀려 9월 2일에서 1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게 된다.

빈곤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 회의는 유엔환경개발회의('92 리우)10주년 그리고 유엔환경특별총회('97 뉴욕) 5주년을 계기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 회의는 지난 10년간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의 경제, 사회질서를 환경가치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회의에는 189개국의 정상급 대표를 포함하는 정부대표, 국제기구대표, NGO대표 등 2만여명의 참석을 예상하고 있다.

이 회의는 4차에 걸친 준비회의에서 국가와 지역차원의 준비사항, 주요 그룹의 참여방안, 저명인사 라운드테이블 토론안 검토와 리우+10 결의문의 주요내용의 합의도출 및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의지가 담긴 결의문안을 논의, 준비한다.

지난 4.30~5.2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파송단과 함께 여성환경연대의 50대 으뜸지기인 박은경박사가 참여하였으며 여성환경인으로서 지속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엔은 리우+10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각국에 <국가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게 그 기능을 맡기고 그 산하에 다양한 대책반을 두어 그 운영과 추진과정에 관계부처와 민간기구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준비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준비위원회, 산업계준비위원회, NGO 또는 NPO준비위원회 등이 구성되었거나 구성 단계에 있다. 1년여를 앞두고 있는 리우+10 준비에 각계가 힘쓰고 있다. 여성환경인의 준비위원회도 별도로 조직하여 독자적인 회의 참가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타 기구들과 협력도 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준비위원회에서는 회의준비의 일환으로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92 지구정상회의 이후 경제사회, 환경부문 등에서의 지속가능발전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내대책으로는 리우+10을 기해 지속가능발전개념의 정책적용확대와 획기적인 인식제고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이란 경제적 활력, 환경의 질과 사회적 형평성의 상호관련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체로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삶의 조건을 현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게

지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PCSD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고용, 생산성, 임금, 저축, 이윤, 정보, 지식과 교육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오염, 폐기물, 빈곤 등을 감축하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통합접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발전개념이 극히 부분적인 환경관련 업무에만 한정,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었던 점이 시정되기를 바란다.

제1차 준비회의의 보고에 의하면 WSSD 2002 참가준비는 일찍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92 리우에서와는 달리 NGO들의 참가범위와 양식이 달라지면서 특히 참가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 NGO들은 유의해야 한다.

2. NGO지구포럼 2002(South Africa NGO Forum)

WSSD 2002의 공식회의는 '92 지구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NGO지구포럼과 쌍벽을 이루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행이 UNCED 이후 각급 세계정상회담에서 뿌리 내린 것은 지속가능발전성의 추진과 실천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92 NGO지구포럼에서는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독자적인 지구헌장과 국제지구협약(NGO 의제21) 등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식회의의 '리우선언'과 의제21제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기구의 개혁과 강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초기의 환경운동이 주로 국내문제에 관심하던데서 벗어나 국제적인 환경가버넌스에 역동적인 정치력을 발휘하기에 이른 것도 그때부터라고 본다.

2002 NGO지구포럼준비는 WSSD 2002의 주최국인 남아프리카의 NGO들이 자임하고 나서 일찍부터 그 준비에 들어갔다. 그들은 이미 관련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질문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① '92 UNCED의 국제적 약속이었던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권역적 그리고 지구적인 실천성과 효율성을 시민사회는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② 시민사회는 어떻게 WSSD 준비과정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인가? ③ 지구적인 준비과정에 시민사회의 의미있는 참여를 이루어 내는데 필요한 매커니즘은 무엇인가, 어떤 NGO구조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 ④ 어떻게 시민사회 조직이 WSSD를 활용해서 사회운동을 강화하고 지구협약의 실천을 이루어내는 통합적인 연대를 이루어 낼 수 있는가? ⑤ 2002년 세계지구정상회의와 그 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지구적 연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등이다.

금년 2월에 UNEP는 나이로비에서 NGO 협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 회의에서 발표한 WSSD에 관한 결의문에서 보면, 이 회의는 UNEP에게 2002 NGO지구포럼의 조직운영 지원, 정보제공, 국가 및 권역의 시민사회의 준비과정 지원, 그리고 9개의 주요 그룹, 특히 소외된 계층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코펜하겐에서 열린 Rio+8 포럼에서는 세계 50개국의 70개 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주제들로 빈곤, 기후변화, 식량, 물, 산림, 거버넌스와 제도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고 했다.

뉴욕에서 열린 제10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시 4월 30일에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대화모임을 가지고 2002 NGO 지구포럼에 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92지구정상회의의 중요한 산물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단순히 공해문제, 생물다양성 감소, 자연자원의 관리 등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개발과 저개발, 부와 빈곤, 풍요함과 결핍, 안전과 형평, 정의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서 2002 NGO지구포럼이 강조하고 있는 쟁점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악화일로에 있는 지구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지구시민 모두가 즉각 행동에 들어갈 것을 금번 WSSD에서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논의한 것은 빈곤과 과소비의 문제로서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이 두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서 지구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빈곤과 저개발의 문제는 환경적인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위협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WSSD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또한 강조한 것은 WSSD 2002는 '92 지구정상회의와는 달리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회의가 되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고 있다. ① 세계지구정상회의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한다 ② 각 나라의 다양한 시민사회가 회의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도록 한다 ③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의 참여를 독려하되 힘이 약한 농민, 여성, 토착민에게 특히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④ 2002 이후의 지구환경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추진계획을 지금 만든다. ⑤ WSSD 주최국으로서의 남아프리카 정부의 역할을 NGO들이 함께 하도록 한다 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 국가, 지구촌 행동 계획에 보통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쓴다 ⑦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과 의제 21추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도록 한다 이다.

남아프리카의 NGO들이 주최국으로서 부여된 기회와 책임을 위해 일찍부터 대활약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NGO들도 일찍부터 준비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데 끝일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견해를 펼치므로 회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

3. 2002 WSSD와 여성

세계여성환경기구(WEDO)는 1991년 11월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92리우회의에 대비한 '건강한우주를위한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여성행동강령-Women's Action Agenda 21>을 제정하여 지구정상회의에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회의 목적은 ①여성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위해 ②정부 또는 NGO의 회의참가 대표단 구성에서 남녀 50/50으로 하기 위해 ③환경과 개발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여성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WEDO는 2002 WSSD에 앞서 또 한번의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여성환경인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기 위해 유엔의 여성 코카스에서는 권역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중 북서아세아여성회의의 조직운영 책임은 한국이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비 우리나라 여성환경인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다양하고 과제의 우선순위결정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조정은 적절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과제들을 예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우리나라 국가준비위원회가 추진중인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정작업과 그동안

의 이행성과평가작업에 적극 참여 ② 유엔의 준비회의, NGO지구포럼 준비회의, 권역별 회의 등을 비롯, 국내 각종 준비회의에 참여 ③ 주변 국가와의 쌍방 또는 다자간의 연대회의(한일, 한중, 또는 한중일 등) 등을 통해 지역환경점검 및 대 국제 지역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일에 참여 ④ 회의 참가 예정자 모집 및 훈련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회의참가의 효율을 제고하는 일 ⑤ 가능하면 동일인이 준비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대책 강구 ⑥ '92 지구정상회의에서 누락된 의제와 10년간의 상황변화로 필요한 새로운 의제 개발 (NGO 의제21, WEDO의 여성행동계획 참조) ⑦ 한국여성환경인의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준비 ⑧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지구환경을 위한 실천모델 개발 ⑨ 요하네스버그 회의장에 전시장(Booth) 준비 ⑩ 언론매체들을 통한 여성환경인의 지속가능발전 개념 확산 노력 ⑪ 위임받은 권역회의의 조직운영을 내실있게 이루어 내는 일 등이다.

남아프리카의 NGO들이 세계지구정상회의를 통해 성취하고자하는 내용을 참고한다면 ① 아프리카 또는 남측(저개발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으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중심 과제로 강조하면서 새로운 인간적, 여성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분명하게 하는 일 ② '92년 UNCED에서 결의한 절차와 협약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남북간에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일 ③ 발전과정에 민초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일 ④ 지구정상회의의 의제에 빈곤과 환경정의 문제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빈곤문제는 2002 WSSD 주제로 채택됨)

여성환경인들이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여성들의 특별 관심사 또는 의제에 새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논의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어떠한 '준거틀'과 기준을 바탕으로 할 것인가 이다.

서울대의 김귀곤교수는 '그 준거틀과 기준은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원칙에 바탕을 두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접근방법에 너무 편도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시행전략과 매커니즘은 동양적 철학과 가치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1.2.15~16, 한·일 지방의제21워크샵-서울)

금번 지구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의제들을 재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제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 모색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여성준비위원회가 중시해야 할 것은 실천을 위한 사례 개발이다.

2002 세계지구정상회의 (WSSD 2002, Rio+10)와 여성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 WSSD 2002

2002년 6월 개최예정이었던 리우+10으로 불리우는 세계지구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세계의 6억의 인구가 열광하는 월드컵 경기에 밀려 9월 2일에서 1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게 된다.

빈곤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 회의는 유엔환경개발회의('92 리우)10주년 그리고 유엔환경특별총회('97 뉴욕) 5주년을 계기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 회의는 지난 10년간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의 경제, 사회질서를 환경가치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회의에는 189개국의 정상급 대표를 포함하는 정부대표, 국제기구대표, NGO대표 등 2만여명의 참석을 예상하고 있다.

이 회의는 4차에 걸친 준비회의에서 국가와 지역차원의 준비사항, 주요 그룹의 참여방안, 저명인사 라운드테이블 토론안 검토와 리우+10 결의문의 주요내용의 합의도출 및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의지가 담긴 결의문안을 논의, 준비한다.

지난 4.30~5.2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파송단과 함께 여성환경연대의 50대 으뜸지기인 박은경박사가 참여하였으며 여성환경인으로서 지속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엔은 리우+10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각국에 <국가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게 그 기능을 맡기고 그 산하에 다양한 대책반을 두어 그 운영과 추진과정에 관계부처와 민간기구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준비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준비위원회, 산업계준비위원회, NGO 또는 NPO준비위원회 등이 구성되었거나 구성 단계에 있다. 1년여를 앞두고 있는 리우+10 준비에 각계가 힘쓰고 있다. 여성환경인의 준비위원회도 별도로 조직하여 독자적인 회의 참가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타기구들과 협력도 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준비위원회에서는 회의준비의 일환으로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92 지구정상회의 이후 경제사회, 환경부문 등에서의 지속가능발전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내대책으로는 리우+10을 기해 지속가능발전개념의 정책적용확대와 획기적인 인식제고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이란 경제적 활력, 환경의 질과 사회적 형평성의 상호관련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체로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삶의 조건을 현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게

지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PCSD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고용, 생산성, 임금, 저축, 이윤, 정보, 지식과 교육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오염, 폐기물, 빈곤 등을 감축하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통합접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발전개념이 극히 부분적인 환경관련 업무에만 한정,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었던 점이 시정되기를 바란다.

제1차 준비회의 보고에 의하면 WSSD 2002 참가준비는 일찍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92 리우에서와는 달리 NGO들의 참가범위와 양식이 달라지면서 특히 참가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 NGO들은 유의해야 한다.

2. NGO지구포럼 2002(South Africa NGO Forum)

WSSD 2002의 공식회의는 '92 지구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NGO지구포럼과 쌍벽을 이루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행이 UNCED 이후 각급 세계정상회담에서 뿌리 내린 것은 지속가능발전성의 추진과 실천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92 NGO지구포럼에서는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독자적인 지구헌장과 국제지구협약(NGO 의제21) 등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식회의의 '리우선언'과 의제21제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기구의 개혁과 강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초기의 환경운동이 주로 국내문제에 관심하든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환경가버너스에 역동적인 정치력을 발휘하기에 이른 것도 그때부터라고 본다.

2002 NGO지구포럼준비는 WSSD 2002의 주최국인 남아프리카의 NGO들이 자임하고 나서 일찍부터 그 준비에 들어갔다. 그들은 이미 관련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질문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① '92 UNCED의 국제적 약속이었던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권역적 그리고 지구적인 실천성과와 효율성을 시민사회는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② 시민사회는 어떻게 WSSD 준비과정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인가? ③ 지구적인 준비과정에 시민사회의 의미있는 참여를 이루어 내는데 필요한 매커니즘은 무엇인가, 어떤 NGO구조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 ④ 어떻게 시민사회 조직이 WSSD를 활용해서 사회운동을 강화하고 지구협약의 실천을 이루어내는 통합적인 연대를 이루어 낼 수 있는가? ⑤ 2002년 세계지구정상회의와 그 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지구적 연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등이다.

금년 2월에 UNEP는 나이로비에서 NGO 협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 회의에서 발표한 WSSD에 관한 결의문에서 보면, 이 회의는 UNEP에게 2002 NGO지구포럼의 조직운영 지원, 정보제공, 국가 및 권역의 시민사회의 준비과정 지원, 그리고 9개의 주요 그룹, 특히 소외된 계층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코펜하겐에서 열린 Rio+8 포럼에서는 세계 50개국의 70개 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주제들로 빈곤, 기후변화, 식량, 물, 산림, 거버넌스와 제도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고 했다.

뉴욕에서 열린 제10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시 4월 30일에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대화모임을 가지고 2002 NGO 지구포럼에 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92지구정상회의의 중요한 산물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단순히 공해문제, 생물다양성 감소, 자연자원의 관리 등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개발과 저개발, 부와 빈곤, 풍요함과 결핍, 안전과 형평, 정의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서 2002 NGO지구포럼이 강조하고 있는 쟁점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악화일로에 있는 지구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지구시민 모두가 즉각 행동에 들어갈 것을 금번 WSSD에서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논의한 것은 빈곤과 과소비의 문제로서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이 두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서 지구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빈곤과 저개발의 문제는 환경적인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위협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WSSD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또한 강조한 것은 WSSD 2002는 '92 지구정상회의와는 달리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회의가 되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고 있다. ① 세계지구정상회의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한다 ② 각 나라의 다양한 시민사회가 회의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도록 한다 ③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의 참여를 독려하되 힘이 약한 농민, 여성, 토착민에게 특히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④ 2002 이후의 지구환경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추진계획을 지금 만든다. ⑤ WSSD 주최국으로서의 남아프리카 정부의 역할을 NGO들이 함께 하도록 한다 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 국가, 지구촌 행동 계획에 보통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쓴다 ⑦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과 의제 21추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도록 한다 이다.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NGO들이 주최국으로서 부여된 기회와 책임을 위해 일찍부터 대활약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NGO들도 일찍부터 준비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데 끝일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견해를 펼쳐서 회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

3. 2002 WSSD와 여성

세계여성환경기구(WEDO)는 1991년 11월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92리우회의에 대비한 '강한우주를위한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여성행동강령-Women's Action Agenda 21>을 제정하여 지구정상회의에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회의 목적은 ①여성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위해 ②정부 또는 NGO의 회의참가 대표단 구성에서 남녀 50/50으로 하기 위해 ③환경과 개발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여성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WEDO는 2002 WSSD에 앞서 또 한번의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여성환경인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일환으로 유엔의 여성 코카스에서는 권역회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 북서아세아여성회의의 조직운영 책임은 우리나라(여성환경연대)가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비 우리나라 여성환경인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다양하고 과제의 우선순위결정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조정은 적절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과제들을 예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우리나라 국가준비위원회가 추진중인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정작업과 그동안

의 이행성과평가작업에 적극 참여 ② 유엔의 준비회의, NGO지구포럼 준비회의, 권역별 회의를 비롯, 국내 각종 준비회의에 참여 ③ 주변 국가와의 쌍방 또는 다자간의 연대회의(한일, 한중, 또는 한중일 등) 등을 통해 지역환경점검 및 대 국제 지역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일에 참여 ④ 회의 참가 예정자 모집 및 훈련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회의참가의 효율을 제고하는 일 ⑤ 가능하면 동일인이 준비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대책 강구 ⑥ '92 지구정상회의에서 누락된 의제와 10년간의 상황변화로 필요한 새로운 의제 개발 (NGO 의제21, WEDO의 여성행동계획 참조) ⑦ 한국여성환경인의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준비 ⑧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지구환경을 위한 실천모델 개발 ⑨ 요하네스버그 회의장에 전시장(Booth) 준비 ⑩ 언론매체들을 통한 여성환경인의 지속가능발전 개념 확산 노력 ⑪ 위임받은 권역회의 조직운동을 내실있게 이루어 내는 일 등이다.

남아프리카의 NGO들이 세계지구정상회의를 통해 성취하고자하는 내용을 참고한다면 ① 아프리카 또는 남측(저개발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으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중심 과제로 강조하면서 새로운 인간적, 여성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분명하게 하는 일 ② '92 년 UNCED에서 결의한 절차와 협약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남북간에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일 ③ 발전과정에 민초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일 ④ 지구정상회의의 의제에 빈곤과 환경정의 문제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빈곤문제는 2002 WSSD 주제로 채택됨)

여성환경인들이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여성들의 특별 관심사 또는 의제에 새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논의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어떠한 '준거틀'과 기준을 바탕으로 할 것인가 이다.

서울대의 김귀곤교수는 '그 준거틀과 기준은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원칙에 바탕을 두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접근방법에 너무 편도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시행전략과 매커니즘은 동양적 철학과 가치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1.2.15~16, 한·일 지방의제21워크샵-서울)

금번 지구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의제들을 재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제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 모색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여성준비위원회가 중시해야 할 것은 실천을 위한 사례 개발이다.